

# 롯데백화점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세상 만든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매장 테마를 '사회공헌'(CSR)으로 정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연초에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리조이스'를 매장에 접목, 우울증 환우 가족과 우울한 마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리조이스(Rejoice) 캠페인'은 2017년 12월 시작한 여성 우울증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다. 여성 직원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특성과 고객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면서 감정 노동을 경험한 여성 직원들의 우울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예방하고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 이제는 여성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롯데쇼핑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장 테마를 '사회공헌'으로 선택한 것은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시즌별 신상품을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특정 테마를 선정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 롯데백화점이 기존 백화점과는 다른 테마를 선택한 것은 '고객과의 공감'을 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이다.

황범석 백화점 사업부 대표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면서 "많은 고객이 우울증 인식 개선은 물론 리조이스 캠페인의 참된 의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따뜻한 동행

리조이스 캠페인 중 대표적인 것은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제 크루즈 선상 워크숍이다.

전국 50여개 롯데백화점은 지역 여성들과 여성 임직원을 선발해 크루즈를 타고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심리적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자들은 배 안에서 명사 힐링 강연과 우울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 여성 우울증 인식 개선 캠페인 봉사활동 진행

롯데백화점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롯데백화점이 미혼모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 단절과 호르몬 변화로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일반 산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 노원점과 광주점 등에서 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리조이스 카페'도 운영 중이다.

김성경 CSR 팀장은 "롯데백화점의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인 리조이스를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전파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해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캠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고객이 리조이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선상 워크숍

